



JTBC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한 장면.

〈JTBC제공〉

JTBC토일드라마 '김부장 이야기', 넷플릭스 '한국 TOP 10 쇼' 1위
2030 "우리 부장님 모습 현실적"...5060 "나의 거울이자 불편한 진실"
송희구 작가 동명 웹소설 원작...공개 한달만에 조회수 1천만회 화제

리뷰 <4>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웃음과 씁쓸함 사이... '김부장'이 전하는 알곳은 현실

"너 아빠가 평범해 보이지? 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대기업 25년차 부장으로 살아 남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애 대학 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거야."

25년간 한 통신 대기업에서 영업맨으로 살아온 김낙수(류승룡 분). 그는 서울 시내 자가 아파트를 마련했고 대학생 아들도 있으며, 팀장직을 거쳐 부장까지 올랐다.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안정된 삶.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신입 사원이 외제차를 타고 팀원이 부동산 수익으로 집을 마련하고 임원 승진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빠진다. 김낙수는 자신이 쌓아올린 가치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직감한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아온 평범한 중년 남성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흔들리는 모습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송희구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판매 30만 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총 12부작 중 4화까지 방영된 현재 TV 시청률은 3%대에 머물지만, 넷플릭스 '한국 TOP 10 쇼' (10월 27일~11월 2일) 1위에 오르는 등 OTT를 중심으로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다.

화제의 중심에는 직장인이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하이퍼리얼리즘'이 있다. 김낙수는 상사에게는 충성스럽고, 팀원에게는 권위를 내세우는 전형적인 중년 부장이다. 팀원들의 보고서는 대충 넘기면 서도 임원 보고용 자료라면 밤새워 수정한다. 젊은

직원의 명품 가방 값을 묻고 그보다 약간 비싼 가방을 사는 식으로 비교와 체면에 집착한다. 인정받고 싶지만 시대의 변화에는 서툰, 익숙한 중년의 얼굴이다. 이런 현실적인 묘사에 2030세대는 "우리 부장이랑 똑같다", "짜증 나는데 웃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5060 중년층에게 김낙수라는 캐릭터는 곧 나의 거울이자 불편한 진실이다. 승진 경쟁에서 밀려 울음으로 발령 나는 동기, 귀찮은 업무를 부하 대신 김낙수에게 떠넘기는 상사 등 현실적인 장면들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자가 아파트와 대기업 부장이라는 '성공의 타이틀'을 지녔음에도 느끼는 불안, 남들과의 비교, 체면의 무게 등이 리얼하게 닮아 있어 "내 삶도 저렇게 뒤 흔들릴 수 있다"

는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김낙수의 위기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비롯됐다. 그는 여전히 술자리 접대와 사내 정치로 관계를 다지고, 자신보다 아래라 여긴 사람에게 사과 한마디 건네지 못한다. 팀원이나 가족의 조언은 흘려듣고, "회사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기대 산다. 그런 태도는 합리와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눈에 구태이자 무능으로 비친다. 결국 그는 영업1팀장에서 한순간에 공장 안전관리팀장으로 밀려나며 몰락의 벼랑에 선다.

그의 추락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만수처럼, "다 이뤘다"고 자부하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중년의 위기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많았지만 이 작품이 차별성을 갖는 점은 '부동산'을 소재로 한다는 점이다. 김낙수가 대기업 명함에 안주하는 사이 친구들과 후배들은 묵묵히 종잣돈을 모아 투자용 아파트와 건물을 사들인다. 김낙수가 '직장'을 사회적 계급의 정점이라 믿는 동안, 자신을 전 세대가 새로운 상층으로 부상한다.

원작 소설이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면이 강했다면, 드라마는 중년 남성이 위기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에 초점을 맞춘다. 김낙수의 몰락과 재기 과정은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과 동시에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위안을 전한다. (JTBC·넷플릭스·티빙)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걸어가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김지혜 작품전, 7~12일 광주 동구 스페이스 DDF

군중 속의 현대인들은 외롭다. 익명의 세계에서 개인은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상황에서 '군중심리'에 휩쓸려 자제력을 잃고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군중심리'와 '군중 속 고독'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김지혜 작가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드로잉을 비롯해 비디오, 설치 미술을 매개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했다.

김 작가가 거리를 흐르듯 유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전을 펼친다. '걸어가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을 주제로 하며 7~12일 스페이스 DDF.

익명의 거리에서 익명으로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의 물결 같은 분위기를 환기한다. 언급한 대로 익명성은 상호 반작용을 추동한다. 고독과도 같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집단적 힘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전시장에서는 초기 드로잉부터 올해 신작 회화까지 볼 수 있다. '걸어가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은 다소 몽환적이면서도 신비롭다. 무수히 많은 도시의 불빛이 뒤엉켜 환상적인 아우라를 발하는 느낌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꿈결인 듯 현실인 듯 모호한 경계를 거닐며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 같다.

김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행인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을 좋아했다"며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은 내게는 시각적 즐거움과



'걸어가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

안정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작가는 광주에고를 거쳐 홍익대 회화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예술대를 졸업했다.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Art in Context 석사과정 중이다. 지금까지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전시, 메리키세스 미술관 전시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첼리스트들의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의 독보적 무대

ACC 슈퍼클래식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 오늘 예술극장

세계적인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Gary Hoffman)은 '첼리스트들의 첼리스트'로 불린다. 깊은 해석과 서정적인 음색, 그리고 인간적인 연주로 클래식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

15세에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데뷔한 그는 이후 카네기홀, 파리 샹젤리제 극장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연주하며 명성을 쌓았다. 북미 출신으로는 최초로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 무대의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거장으로 존경받고 있다. 삶의 끝없는 질문에 음악으로 답해온 게리가 광주 무대에 선다.

게리 호프만은 7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의 기획 시리즈

'ACC 슈퍼클래식'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무대에서 호프만은 베토벤 첼로 소나타 1번부터 5번까지 전곡을 연주한다. 국내에서도 드물게 만날 수 있는 전국 공연으로 호프만의 음악적 깊이와 해석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무대다.

첼로의 중후한 울림과 피아노의 선율이 교차하며 베토벤이 남긴 인간적 고뇌와 자유의 메시지를 새로운 감동으로 전할 예정이다.

무대에는 그의 오랜 음악적 동반자인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셸리가 함께한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온 듀오로 서로의 음악을 완벽히 이해하는 연주로 정평이 나 있다. 셸리의 섬세한 터치와 호프만의 깊은 표현력이 어우러져 한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오른쪽)과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셸리. <ACC재단 제공>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 '13도제' 주제 학술대회...오늘 전북대

근대 행정제도의 역사를 매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뿌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특히 근대 행정제도를 토대로 지역 간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 연구 및 교류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어 의미가 깊다.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회장 홍영기)는 7일 전북대 인문사회관(208호)에서 전국 6개 권역 역사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4차 호남학 연구포럼'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호남사학회, 전북사학회 등 6개 권역 역사

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학호남진흥원, 호남학연구진흥협의회 등이 주관한다.

'13도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13도제 실시 130주년을 맞아 근대 행정제도의 형성, 변화를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무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